



빅뱅의 멤버 팀(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 ‘대마 흡연’ 빅뱅 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탐 “상처드려 죄송, 인생의 교훈 삼겠다”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멤버 팀(30·본명 최승현)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만2000원을 추징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는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파괴하게 한다”며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국내외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공인”이라며 “최씨를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

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던 최씨는 선고 직후 김 부장판사를 향해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 인사를 한 뒤 서둘러 빠져나갔다. 최씨는 곧이어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겁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팬과 국민께 많은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고 사죄했다.

최씨는 군 복무에 대해선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대기 중인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A씨와 함께 대마 액상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호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으로 풀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토로했다.

/뉴스

## 쉐보레,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공식 후원

쉐보레(Chevrolet)가 내달 11일부터 사흘간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개최되는 2017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Incheon Pentaport Rock Festival 2017)을 공식 후원한다.

쉐보레는 페스티벌 기간 동안 행사 현장에 홍보부스를 운영, 올 뉴 크루즈 볼트(Bolt) EV, 카마로SS 등 제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펼친다. 더불어 인근 지하철역과 행사장을 오가는 쉐보레 셔틀 차량을

통해 참가 관람객에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달 31일까지 이번 락 페스티벌과 연계한 대규모 경품 이벤트를 열고 쉐보레 홈페이지(www.chevrolet.co.kr)를 통해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락 페스티벌 입장권 100매와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 1,000매를 증정하는 한편, 쉐보레 공식 SNS 채널에서도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마케팅본부 이일섭 전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름 음악축제인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공식 스폰서십을 통해 음악을 사랑하는 고객들에게 쉐보레 브랜드의 젊고 역동적인 가치를 알릴 계획”이라며, “향후 브랜드 가치를 높여낸 폭넓은 문화 마케팅을 지속함으로써 제품의 우수한 상품성을 알리는 한편 고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산=장현 기자

## FC서울 데얀, 헤트트릭 최다 타이 기록 달성

### 인천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서 팀의 5-1 대승 이끌어

K리그와 FC서울의 살아있는 역사인 데얀이 다시 한 번 대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데얀은 지난 19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17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3골을 넣으며 팀의 5-1 대승을 이끌었다.

봉산 6번째 헤트트릭을 기록한 데얀은 김도훈 사샤와 함께 이 부문 공동 1위로 올라섰다.

데얀은 2008시즌과 2010시즌에 각각 한 차례씩 헤트트릭을 달성했다.

2011시즌에는 두 번이나 한 경기에서 세 골 이상 터뜨렸고, 2013년에도 한 차례 헤트트릭의 기쁨을 맛봤다.

이미 김도훈과 사샤가 선수 생활을 끝낸 만큼 데얀이 현재 기세를 이어간다면 최다 헤트트릭 기록자 등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얀은 2007년 K리그에 데뷔해 2011년부터 3년 연속 득점왕에 올랐다.

K리그에서 마흔 9시즌 동안 모두 두 자릿 수 골을 터뜨리는 등 통산 167골을 기록 중이다.

한편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서울은 오는 22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한다.

/김민근기자



데얀은 2008시즌과 2010시즌에 각각 한 차례씩 헤트트릭을 달성했다.

##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넛볼대회 개최

### 내일 전주화산체육관서

전국 각 시도별 체육회와 넛볼연합회가 선발 추천한 선수 및 임원 등 300여명이 참가하는 제15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넛볼 대회가 내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다.

전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주시넛볼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각

조별 추첨에 의한 리그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조별 승자가 결정될 경우 추첨에 의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넛볼은 청소년들이 간편히 즐길만한 스포츠로서 경기 자체가 쉽고 안전하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여러 초

중고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넛볼을 즐기며 체력향상과 공동체 정신 함양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용성 전주시넛볼협회회장은 “타종목에 비해 청소년과 여성들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넛볼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대중스포츠로 더욱 발돋움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기자

## K리그 조용형·백동규, 아시아축구연맹 징계 경감

상대 선수들과의 충돌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제주 유나이티드 조용형(33)과 백동규(26)에 대한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징계가 경감됐다.

제주는 20일 조용형과 백동규의 출전 정지 징계가 각각 3개월과 2개월로 줄었다고 밝혔다.

AFC는 지난 5월31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 202에서 열린 제주와 우라와의 2017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으로

조용형에게 6개월 출전정지에 제재금 2만 달러(약 2200만원)를, 백동규에게 3개월 출전정지에 제재금 1만 5000달러(1700만원)를 지난달 9일 각각 부여했다.

또 권한징계에는 2경기 출전정지 및 벌금 1000달러(110만원), 제주에는 벌금 4만 달러(약 4500만원)를 처분했다. 이에 제주는 당시 영상과 사진, 진술 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AFC에 재심의 요청했다.

AFC 징계 항소위원회는 재심 결과 조용형과 백동규에게 최하보다 낮은 징계를 처분했다.

이에 조용형은 오는 9월9일 FC서울과의 원정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다만 유예기간 1년 안에 동일사건 발생 시 3개월 추가정지를 받는다.

백동규는 다음달 13일 강원FC와의 원정경기부터 나설 수 있다.

두 선수의 벌금은 그대로 부과된다.

/김민근기자

## 결그룹 ‘여자친구’ 내달 1일 다섯 번째 미니앨범 ‘패럴렐’ 발매

대세 6인조 걸그룹 ‘여자친구’가 5개월 만에 컴백한다.

20일 소속사 소스뮤직에 따르면 여자친구는 오는 8월1일 다섯 번째 미니앨범 ‘패럴렐(PARALLEL)’을 발매한다. 지난 3월 발표한 네 번째 미니앨범 ‘디 웨이크닝(The Awakening)’ 이후 5개월 만이다.

여자친구는 건강하고 청량한 매력과 트레이드마크인 칼군무로 ‘파워 청순’

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여름과 공감을 보여줬었다.

특히 2015년 7월 ‘오늘부터 우리는’과 2016년 7월 ‘너 그리고 나’를 히트시켰다.

소스뮤직은 “여자친구는 데뷔 초부터 스토리텔링이 담긴 탄탄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여섯 소녀들의 성장 스토리가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며 “이번에도 걸그룹의 올바른 성



장사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